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치료에 대한 생각

주 대 원 / 가야치과병원

치과 보철 진료는 늘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술식을 적용해 보라는 유혹속에 이루어진다. 물론 치과의사는 계속적인 공부를 통해 새로 소개되는 재료와 술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하게 환자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기대와 주목을 받았던 술식이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연자가 치과대학을 졸업하던 무렵인 40여년전에 Maryland Bridge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Etched cast restoration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대치의 삭제가 없는 fixed partial denture라니. 그러나 현재 이 술식을 사용하는 임상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

이런 특정한 술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는 개념이 바뀐 것들이 적지 않다. 임상경험이 쌓여 가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긴 호흡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수련 및 석,박사
-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보철과 수련 및 석사
- * 서울치대 보철과 외래교수
- * 현, 가야치과병원 공동원장